

‘김시우와 열애 인정’ 오지현 올 시즌 끝으로 은퇴하나?

내년 10월 결혼식 예정...미국서 내조 전념할 듯



‘골프 커플’ 탄성이 일파했다. 열애 사실을 공개한 김시우(오른쪽)와 오지현. 사진출처 | 김시우 인스타그램

청소년 국가대표 시절 태극마크를 함께 단 것이 연인의 시작이었다.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2019년. 활동무대는 미국과 한국으로 서로 달랐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올해로 3년째 애뜻한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시우(26·CJ대 한통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는 오지현(25·

KB금융그룹), 두 골프스타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을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오지현은 1일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열애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며 ‘골프스타 커플’의 탄생을 알렸다. 이날 2020도쿄올림픽에서 공동 32위를 차지한 연인 김시우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드디어 우승!!! 축하해♥ 서로 같은 해 3년 만에 우승”이라는 글과 함께 오지현이 우승 트로피에 입맞추는 사진을 올려 축하의 뜻을 전했고, 오지현 역시 “고마워♥♥♥”라는 답글을 달았다. 오지현은 3년 만에 트로피를 추가하며 KLPGA 투어 통산 7승을 수확했고, 김시우는 지난 1월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정상에 오르며 3년 8개월 만에 통산 3승을 거둔 바 있다.

둘의 열애는 이미 골프계에선 잘 알려진 사실로 둘은 짝꿍이 상대방이 경기 중인 대회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고, 개인 SNS를 통해 교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KLPGA 투어 내에선 올 초부터 ‘오지현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김시우 텃밭자리에 전념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와 관련해 투어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일 “둘은 내년 10월 결혼할 예정”이라며 “오지현이 아무래도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는 말로 오지현이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판곤 위원장 배제...안일했던 KFA 수뇌부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

정몽규 회장 3선 이후 밀실행정 기류
황보관 대회기술본부장 선수단 통제
와일드카드 선발 준비과정부터 삐걱

한국축구의 사상 2번째 올림픽 메달 도전은 좌절로 끝났다. 잠시나마 꿈꿨던 역대 최고의 성적 대신 4강 진출 실패로 마무리됐다. 조별리그를 2승1패로 통과한 뒤 맞이한 멕시코와 8강전은 참사였다. 전반에만 3골을 내준 끝에 3-6으로 무너졌다.

성적으로 실력을 입증하는 김학범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당연히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대회 결과도 그렇지만, 준비과정은 더욱 미흡했다. 특히 와일드카드(만 25세 이상)를 비롯한 선수 선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조직력을 탄탄히 구축하지 못한 채 올림픽에 무모하게 도전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도쿄올림픽 참사가 오직 김 감독만의 잘못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축구협회(KFA) 집행부의 안일함

이야말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다. KFA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교적 투명한 프로세스로 호평을 받았다. 김판곤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장이 중심을 이룬 기술 파트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운영됐다. 국가대표팀은 물론 23세 이하(U-23) 등 각급 연령별 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대회 준비 역시 철저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또 주요 대회가 끝나면 리부 시스템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김학범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이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학범호’는 메달 획득을 노렸지만 멕시코와 8강전에서 3-6으로 참패하며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따랐다. 현지에 파견된 기술연구그룹(TSG)이 내놓는 대회 리포트들 기반으로 여러 문제들을 철저히 짚었고, 이를 보완하면서 다음 대회를 대비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뭔가 달라졌다. 정몽규 회장이 3선에 성공한 뒤 수뇌부가 바뀌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밀실행정의 기

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외부인사들을 끌어들이려 거창하게 ‘열린 시스템’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가득한 비효율적 조직으로 보일 뿐이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핵심 층은 구세대에 가깝다. 귀를 닫고 소통이 사라진 듯한 인상이 다분하다.

신임 집행부 체제에서 맞이한 첫 메이저 대회인 도쿄올림픽은 역시나 심각했다. KFA 수뇌부는 ‘김학범호’를 전혀 지원하지 못했다. 일본은 연말부터 당당자를 지정해 해외파 차출을 위한 클럽 설득에 나섰다. KF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현지를 찾지 않았다. 결국 김 감독은 선수가 직접 구단을 설득하는 데 기대를 걸었고, 실제 그랬다.

심지어 올림픽 기간에는 황보관 대회기술본부장이 선수단장으로 선수단을 통솔했다. ‘김학범호’ 출범부터 코칭스태프와 머리를 맞대며 각급 대회를 준비해왔고,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김 위원장은 완전히 배제됐다. KFA는 TSG 위원조차 동행시키지 않았다. 누구보다 현재의 U-23 선수들을 잘 알고 코칭스태프를 도울 수 있는 인물들을 배제한 결과, 멕시코전의 참사가 벌어졌다.

정 회장의 사과문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사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당장 1년 뒤 2022카타르월드컵 본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거꾸로 돌아가려는 KFA는 지금까지라도 다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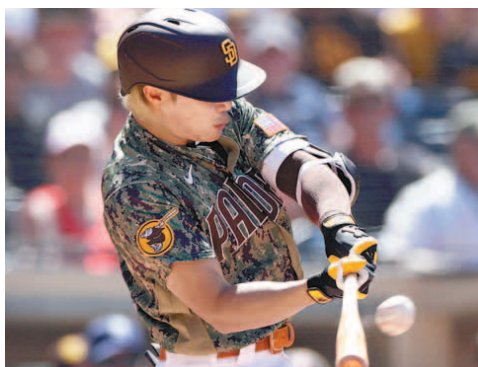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하성 156km 쿵 40일 만에 홈런포

콜로라도전 솔로포 포함 2안타 3타점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40일 만에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펍코파크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의 맹활약으로 팀의 8-1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2일(한국시간) 펍코파크에서 벌어진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 6회말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6월 23일 LA 다저스전 이후 40일 만의 홈런이다.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승리를 이끌었다. 김하성의 한 경기 3타점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이다. 시즌 타율은 0.207에서 0.214(206타수 44안타)로 올랐다.

김하성은 2-0으로 앞선 1회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이날 첫 타점을 수확했다. 콜로라도 선발투수 오스틴 곰버를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었다. 4회말 희생번트를 성공시킨 그는 6회말 3번째 타석에서 홈런포를 가동했다. 이날 선두타자로 나서 바뀐 투수 안토니오 산토스를 상대로 좌중월 솔로포를 날렸다. 시즌 97마일(시속 약 156km)짜리 빠른 공을 정확한 타이밍에

받아쳤다. 시즌 6호 홈런으로, 6월 23일 LA 다저스전 이후 40일 만이다. 당시 김하성에게 홈런을 빼앗긴 상대 투수는 다저스의 좌완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다. 8회말 4번째 타석에선 베파로 물러났다.

경기 후 김하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기에 나가 공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김하성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같은 인상을 줬다”며 이날 경기의 활약을 극찬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장원시 닭한마리

창업문의 **1833-6927**

5無

보증금 가맹비 감리비

광고비 로열티

적게 투자하고 정직하게 남는 닭한마리집!